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일제 건립한 우도등대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

데스크승인 2013.02.17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2005년 전국 최초로 등대를 테마로 조성된 우도 등대공원은 지난해 100만명이 방문하면서 해양 문화공간이자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공원에는 3개의 등대가 있다. 2006년 점등 100주년을 맞아 복원된 목재 등간, 1919년부터 2003년 까지 바다의 길잡이 역할을 해 온 근대식 등대(구 등대), 2004년 들어선 현대식 등대(신 등대)다.

등대 주변에는 세계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 파로스 등대, 상하이 마호타파고다 등대 등 세계 유명 등대 모형 14점이 전시돼 있다. 또 등대 시뮬레이션, 영상관, 전시실, 포토존,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다.

공원의 백미는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 폭의 풍경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광경을 꼽을 수 있다.

등대공원과 우도봉은 영화 촬영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84년 동안 유지해 온 근대식 등대는 지금도 불을 밝힐 수 있다. 신 등대가 낙뢰 피해 등을 입을 경우 비상용으로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다.

등대의 핵심인 등명기도 세월에 따라 변모했다. 1905년 석유등과 1906년 아세틸렌 가스등은 일본이 설치한 것이다.

1958년 도입한 등명기(DCB-24R)는 공항에서 쓰던 관제등을 끼어 넣은 것으로 미국이 제작한 것이다.

수입산이던 등명기는 2003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KRB-375'가 도입됐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대형 회전식 등명기는 50km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광력을 증강시켰다.

21년 동안 등대에서 근무해 온 고성봉 우도항로표지관리소장은 "100여 년 전 제주에서 최초로 건립된 우도 등대는 지금은 정보통신기술과 위성항법장치와 접목,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첨단 등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